

# A Dynamic International Relations Analysis Model Centered on Elites Variables: Logic and Example

**Jang-Hwan Joo**

Hanshin University

## **Abstract**

This article presents an alternative model for analyzing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same time, to verify the validity of this model, it is applied to the cases of US-China relations during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and the first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the two most important countr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name of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is the elite variable-centered, dynamic international relations analysis model. This model has two main features. First, it focuses on elite variables as a key factor in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eco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open, not closed. In theory, this model can be said to be an organic combination of a four-dimensional elite typology, a policy typology linked to it, and a morphogenetic international relations analysis framework. A more detailed discussion of this is mainly covered in Chapter 2 of this article. Based on this theoretical discussion, this paper verifies the validity of this model in Chapter 3. Specifically,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bilateral relations during the first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in the US and the second and third terms of Xi Jinping in China from early 2017 to early 2025. This case study is believed to be able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elite variable-centered, dynamic international relations analysis model by explaining the dynamics of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is period. In conclusion, we summarize this paper, derive implications such a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nd formalize future research tasks based on them.

## **Keywords**

US-China relations, elite variable-centered dynamic international relations analysis model, elite typology, policy typology, morphogenetic international relations change analysis framework

#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국제관계 분석 모델: 논리와 사례\*

주장환\*\*

한신대학교

## 요약

이 글은 국제관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동시에 이 모델의 적실성 검증을 위해 현 시기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 국가인 시진핑 집권기와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 시기 미국과 중국관계의 사례에 적용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모델의 명칭은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국제관계 분석 모델이다. 이 모델의 특징은 주되게 두 가지이다. 첫째, 국제관계 변화의 핵심 요인 중 엘리트 변수에 착목한다. 둘째, 분석의 결과가 닫혀있지 않고, 열려 있다. 이론적으로 이 모델은 4차원적 엘리트 유형법과 이와 연동된 정책 유형법 그리고 형태발생론적 국제관계 분석틀의 유기적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이 글의 제2장에서 주로 다뤄진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제3장에서 이 모델의 적실성을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2017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의 미국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 시기와 중국의 시진핑 2기와 3기 시기의 양국관계를 통시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이 사례 분석을 통해 이 시기 이 양국관계 변화의 동학을 설명함으로써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국제관계 분석 모델의 적실성을 이 글은 검증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 글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성과와 한계 등 함의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향후 연구 과제를 정식화한다.

## 주제어

미중관계,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국제관계 분석 모델, 엘리트 유형법, 정책 유형법, 형태발생론적 국제관계 변화 분석틀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C2A01090085).

\*\* 한신대학교 동아시아통상학 전공 교수/ 한신대학교유라시아연구소 소장.

## I. 서론

이 글은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의 동학을 설명하는 ‘대안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시론(試論)적으로 미중관계에 적용하고자 한다. 국제관계는 사전적으로 양자 혹은 복수의 국가 간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관계에 대한 이론은 주권국가를 중심 행위자로 놓고 이들 간의 관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전재성, 2022, 261).

이 글에서 제시하는 대안적인 분석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과학철학의 측면에서 실재론적 존재론과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제관계이론의 대표적인 조류인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등과 그 메타 이론적 기반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과학철학의 조류 중 하나인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과 그 궤를 같이한다. 즉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이원론과 사회 현상의 실체는 개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재론 그리고 이 실체를 인식하는 사회적 시각의 다양함에 대한 상대주의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이기홍, 2021, 73-121). 예를 들어, 현재 시기의 국제질서의 속성이 탈 냉전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실재한다. 그러나 이 탈-탈 냉전기의 국제질서의 속성에 대해서는 신냉전, 다극화, 일극화 등 그 인식은 다양하다. 또 각 인식의 주창자들은 그들의 인식에 맞게 현실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열린 결론을 추구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분석틀에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영역에서의 인과성은 다르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즉 전자는 폐쇄체계인 반면 후자는 개방체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방체계에서의 인과성은 발현성과 경향성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한다. 더불어 논리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은 그 메커니즘을 설명 및 이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에 닫힌 결론 즉 결과를 결정론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Bhaskar, 1997, 229-238). 따라서 열린 결론은 특정 영역의 동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근거한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현상화될 수 있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세팅하는 것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주장환, 2025b, 247-248).

셋째, 행위자 중심성을 강조한다. 이 글의 대안적 분석들은 사회현상의 주요 요인으로서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보완성과 각각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이 두 요인 중 특히 행위자에 방점을 둔 모델을 설계한다. 그 이유는 상술한 바대로 열린 체계로서의 사회현상은 구조적 요인 못지않게 행위자의 선택에 의해 그 결과가 상당 정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Bhaskar, 1998, 25-35). 따라서 이 분석들은 구조에 종속되는 요인으로서의 행위자가 아닌 독자적인 인과적 작인을 가진 존재로서의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강조한다.

이와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진 대안적 분석들은 다음의 두 가지 기존 연구 성과의 조합을 통해 완성된다. 첫 번째는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하여 국내적 사회 변화 모델을 설명한 형태발생모델(Morphogenetic model)을 국제관계에 적용한 동태적 양국 관계변화 분석 모델이다. 이 모델은 열린 결론을 지향하는 양국 관계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동시에 일부 국제관계 연구에서 그 적실성이 검증되었다(주장환, 2025a; 주장환, 2025b).

두 번째는 엘리트와 정책 유형간 관계 모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엘리트 유형은 통합, 분화, 순환의 방식, 순환의 범위 등 4개의 범주의 조합인 4차원적 분류법을 활용한다. 총 16개의 세부유형으로 구성된다. 또 이와 대응되는 정책 유형은 영역별로의 상이한 유형의 중첩을 전제한 상태에서의 가치와 태도 등 2개의 범주의 조합인 2차원적 유형법을 사용한다. 즉 특정 국가의 정책 유형은 대내와 대외 영역에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외정책이라는 단일 영역이 탐구 대상이기에 총 4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성된다(주장환, 2024a). 물론 이 엘리트와 정책 등 두 변인간의 접합은 현재 논리적으로만 이뤄져있다. 따라서 이 글의 사례는 이 두 분류법의 경험적인 실재형을 대응하는 과정 중의 하나으로써도 자리 매김된다.

한편 이 글에서는 상술한 특징을 가진 양국관계 변화 분석들을 2017년부터 2024년 사이의 미중관계에 적용한다. 시기 선정의 이유는 2017년부터 미국에서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로 그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권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중국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에서 3기로 변화하여 그 체제 성격에서 일정한 변화가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리트 변화로 인한 정책 변동 그리고 양국 관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이 글의 연구 설계를 주요 개념과 분석틀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3장에서는 본격적인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미중관계를 사례로 양국관계의 변화를 엘리트-정책-양국 관계 변화를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대한 정리와 시사점과 함의,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의 정식화는 결론에서 진행 된다.

## II.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국제관계 변화 분석 모델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국제관계 변화 분석 모델은 서론에서 밝혔듯이 두 분석틀의 조합이다. 먼저,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 of Elites Transformation and Policy Change)’이다(주장환, 2024, 202-211).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분석틀은 4차원적 엘리트 유형법과 4×n(정책 영역의 개수)정책 유형법간의 관계로 구성된다. 4차원적 엘리트 유형법은 통합, 분화, 순환의 범위 그리고 순환의 방식 등 4차원에서의 유형 변동을 측정하는 분류법이다. 여전히 경험 연구를 통한 사례의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부 국가들의 사례에서 이미 그 적실성을 검증받고 있다(주장환 외, 2023, 7-11).

〈표1. 4차원적 엘리트 유형법〉

통합	분화	순환 범위	순환 방식	세부 유형
강(S)	넓음(W)	넓음(W)	점진적(G)	S-W-W-G
			급진적(S)	S-W-W-S
		좁음(N)	점진적(G)	S-W-N-G
			급진적(S)	S-W-N-S
	좁음(N)	넓음(W)	점진적(G)	S-N-W-G
			급진적(S)	S-N-W-S

약(W)	넓음(W)	좁음(N)	점진적(G)	S-N-N-G
			급진적(S)	S-N-N-S
		넓음(W)	점진적(G)	W-W-W-G
			급진적(S)	W-W-W-S
	좁음(N)	넓음(W)	점진적(G)	W-W-N-G
			급진적(S)	W-W-N-S
		좁음(N)	점진적(G)	W-N-W-G
			급진적(S)	W-N-W-S
좁음(N)	좁음(N)	점진적(G)	W-N-N-G	
		급진적(S)	W-N-N-S	

자료: 주장환, 2023, p. 43

정책 변화를 측정하는 분석틀은 ‘가치’(좌파, 우파)와 ‘태도’(진보, 보수)등 2차원의 범주와 각 정책 영역을 접합시킨 4×n(정책 영역의 개수)정책 유형법을 활용한다. 이 유형법은 기본적으로 좌파-진보, 좌파-보수, 우파-진보, 우파-보수와 같이 가치와 태도 차원에서 4가지 유형에다가 영역의 수에 따라 그 경우의 수가 확대된다. 또 영역별로 상이한 정책 유형을 가질 수 있다고 상정한다. 영역에 따른 정책의 중층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주장환, 2023, 39-43). 이 분류법 역시 현재로서는 이념형으로 설계된 것이기에 향후 더 많은 사례의 축적이 필요하다. 한편 이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그 정책의 영역은 대외 정책으로 단일하다. 따라서 총 경우의 수는 4가지이다.

〈표2. 2차원적 대외정책 유형법〉

태도	가치	대외
진보(P)	좌(L)	F(P-L)
	우(R)	F(P-R)
보수(C)	좌(L)	F(C-L)
	우(R)	F(C-R)

자료: 주장환, 2023, p. 45

다음으로 ‘동태적 양국관계 변화 분석 모델’이다. 이 모델은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하여 국내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형태발생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Archer, 1995, 33-66). 그 분석 대상을 국내에서 국제로 치환하고 있다. 동태적이라 함은 이 모델의 분석 결과는 하나의 ‘열린’ 결론이며 시나리오 산출의 근거일 뿐이고, 현실태로써의 결과는 해당 행위자의 합목적적인 작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주장환, 2025, 234-237).

이 동태적 양국관계 변화분석 모델에서 양국 관계 형성의 초기 조건을 제도적 조건으로 상정한다. 이 제도적 조건의 외생 측면은 당시 패권세력과 도전세력과의 관계 속성과 직결되는 세계질서와 당시 구체적인 양국관계의 상황이다. 전자가 후자에 선재한다. 후자는 그 이후 단계인 구조 및 문화의 상황논리와 직결되는 각각의 발현성으로 외화된다. 이 발현성은 구조적으로 필요와 조건 그리고 문화적으로 양립 가능과 불가능으로 세분화된다. 이들의 조합으로 내생적 조건화에서 구조적으로 상황논리는 보호, 타협, 기회주의, 제거로 문화적으로 상황논리는 보호, 혼합수정, 자유 활동, 선택 강요로 귀결된다.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제도적 조건하에서 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이로 인한 행위전략이다. 물론 이 상호작용의 행위자간의 물질적 차원에서의 협상 지위와 문화적 차원에서의 교섭강도에 따라 조정 및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호작용은 방어, 양보, 기회주의 그리고 경쟁적 유형으로 세분화되고, 이에 대응하는 행위전략은 보호, 타협, 기회주의 그리고 배제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정교화 단계에서는 상대국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양국관계가 형성된다. 이때 만약 양국간 행위전략이 기회주의와 배제일 경우 기존 현상의 변경 가능성이, 또 보호와 타협일 경우 기존 현상의 유지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들을 통해 양국관계는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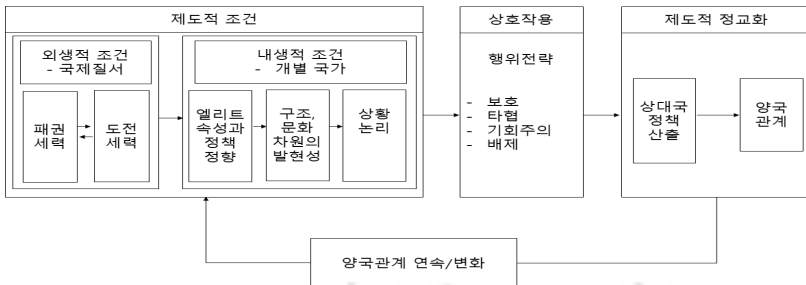
**<표3. 동태적 양국관계 분석모델의  
발현적 속성, 상황논리, 상호작용 유형 그리고 행위전략>**

발현적 속성/상황 논리		상호작용 유형	행위 전략
구조	문화		
필요/보호	양립가능/보호	방어	보호
필요/타협	양립불가능/혼합수정	양보	타협
조건/기회주의	양립가능/자유 활동	기회주의	기회주의
조건/제거	양립불가능/선택 강요	경쟁	배제

자료: 주장환, 2025, p. 22

마지막으로 이 글의 분석틀에서 상술한 두 모델의 접합을 시도한다. 기본적으로 동태적 양국관계 변화 분석틀의 내생적 조건화 단계에서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 분석틀을 추가한다. 즉 특히 외교 정책의 내생적 조건화의 실제적인 주체는 각 국가의 최고 지도자와 집권 정당 등을 위시한 정치 엘리트층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들의 변화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동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생적 조건의 발현성뿐만 아니라 이 내생적 조건 내에도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에 대한 변수가 삽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외생적 조건의 발현적 속성과 상황논리 사이의 매개 변수로써 각 국가의 엘리트 층의 정책 방향이 기존 모델에서의 기회비용과 더불어 상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국제관계 분석틀>**



### Ⅲ. 미중관계의 변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 시기

#### 1.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미중관계: 2017~2021년

이 사례는 양국관계에서 엘리트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차별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급변침했다(박원곤, 2019, 216). 한편 이런 미국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또한 이전 시기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 참고로 이 시기 중국은 대체로 시진핑 집권 2기(2017~2022년)에 해당한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의 기초는 질적으로 변화했으며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전과는 달리 미국 등과의 전략적 경쟁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신중호, 2024, 33-35). 이 양국의 정책 변화의 결과는 이 시기의 미중 관계가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본격적인 ‘갈등’과 ‘분리’의 특징을 나타내게 만들었다(공민석, 2022, 10-22). 이 과정을 2장에서 밝힌 분석틀을 적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생적 조건으로서의 국제질서의 속성이다. 2017년 경 미중 양국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는 중국의 자국의 신흥강대국 지위와 이익을 인정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피하자는 요지의 신행대국관계 구축 제안을 미국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따라서 협력과 갈등의 중간 지점에 처해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유희복, 2023). 그러나 중국의 제안에 미국이 선뜻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적인 변화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어도 협력보다는 갈등의 방향으로 전화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7년 당시 국제질서의 구조 및 문화적 차원의 발현성은 기존의 필요/양립 불가능한 것에서 조건/양립불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국제질서의 발현성이 각 국가의 내재적 조건으로 인해 ‘굴절’될 수 있다. <그림 1>의 분석틀에 따르면, 양 국가의 엘리트의 속성과 이에 기반한 정책 방향의 특징이다. 미국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엘리트 속성은 정치행정 측면에서의 트럼프즘(Trumpism)으로 정리된다. 이 개념에는 권위주의, 포퓰리즘 그리고 반 관료주의가 핵심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엘리트는 기본의 행위자와 제도에 대한 불신과 배제를 전제한다. 우선 기존 정치 엘리트를 배제하고 더 나아가 엘리트층 전체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기존 엘리트 정치의 제도인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꾀했다. 마지막으로 관료제 자체의 합리성과 근거를 부정하고, 개인적인 충성도를 중심으로 엘리트 선발을 진행했다(Resh, Ahn, Moyniha, 2024). 따라서 이 현상적 사실들을 4차원적 엘리트 유형법에 따라 설명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엘리트의 통합의 수준은 낮아졌으나, 분화의 수준은 높아졌고, 순환의 범위는 높아졌으나 그 방식은 급진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직전인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엘리트 유형을 안정적이지만 그리 역동적이지 않은 민주주의 체제 유형(S-N-N-G)에서 불안정한 민주주의 체제와 대응되는 엘리트 유형(W-W-W-S)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집권 2기의 엘리트 유형이 해당되는 시기는 2017년에서 2022년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중국 엘리트 정치 전반에 상당한 질적 변화가 발생했다. 시진핑이라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력 집중으로 현상화된 이 시기에는 기존 중국 개혁·개방 시기와는 차별화된 구조와 행위자 차원에서의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구조차원에서 이 시기에 들어 중국 엘리트 정치의 구조는 기존의 지배하는 과두제 유형에서 술탄제적 유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주장환, 2017). 다음으로 행위자 차원에서도 이와 상응하게 기존 시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됐다. 즉 개혁·개방기에는 약한 통합 정도, 높은 분화 정도, 낮은 순환의 범위와 점진적 순환의 방식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유형(W-W-N-G)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점차 강한 통합 정도, 약한 분화 정도, 높은 순환의 범위와 급진적 순환의 방식의 유형(S-W-W-S)으로 변화했다(주장환, 2024b). 이 흐름으로의 추세가 본격화된 시기가 바로 권위주의의 심화를 그 특징으로 하는 시진핑 집권 2기이다.

이런 서로 다른 양국의 엘리트 유형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내포한다. 첫째, 미국의 경우 엘리트 유형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욱 질적으로 진행됐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집권 2기인 탓이기도 하겠지만, 집권1기부터 진행된 변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통합의 정도에서 양국의 엘리트 유형은 차이가 나지만 나머지 분화 정도, 순환의 범위 그리고 방식의

차원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와 관련된 체제 유형과 비교했을 때, 미국과 중국의 경우는 기존 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와 심화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주장환, 2024c, 17-18).

선행 조건인 국제질서가 필요/양립 불가능한 것에서 조건/양립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내재적 조건하에서의 양국의 구조 및 문화적 발현성은 외재적 조건하에서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여기에는 정책 정향이 변수로써 매개된다. 우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정향은 가치의 측면에서는 이전 정부보다 더욱 우파적이고, 태도의 측면에서는 보수적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이민자와 국경 문제에 대해 드러난 이 행정부의 정책은 이전 정부보다는 더욱 우파적이라 할 수 있다(F(C-R)). 즉 반 관료주의적이라는 점에서는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대중에 대한 직접 지지를 그 기반으로 삼고 정부 셋 다운과 행정 명령을 주요 정책 투사 수단으로 삼는 점 등은 관료주의적 대중추수주의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안용진, 2025) 따라서 국제질서에서 흐름으로 존재했던 조건/양립불가능형이 더욱 심화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다음으로 시진핑 집권 2기는 집권1기의 특히 대외정책에서의 우파적이고, 보수적인 정책 정향이 이 체제의 공고화와 더불어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의 정향을 가지고 있었다(F(C-R)). 즉 더욱 중국의 이익과 그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정책을 심화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주장환, 2023, 49-51). 따라서 이런 양국가간의 정책 정향의 유사함은 이 당시국제질서에서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봤던 조건/양립불가능으로의 발현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구조 및 문화적 차원의 발현성은 두 국가의 집권 엘리트층의 기회비용에 따라 각각의 상황논리로 귀결된다. 또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미국의 경우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최대한 선명한 노선을 바탕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생성된 발현성에 대응되는 상황논리를 변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다만 정책의 성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반대세력의 저항이 심각할 경우 그 변경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트럼프 1기 집행부의 경우 그 엘리트와 정책 정향의 특성으로 인해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대

의제에 입각한 선거에 따라 정권의 교체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사실상의 반대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는 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성된 발현성에 대응되는 상황논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양국이 각각 선택한 상황논리는 동일하게 구조적으로 제거, 문화적으로는 선택 강요로 귀결되었다.

그 다음 단계는 제도적 조건하에서 양 국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 결과 특정 행위전략이 형성된다. 물론 이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양 국가의 종합 국력과 양국 관계의 특수성 등 물질 차원에서의 협상지위와 양 약국간의 이념 및 의견의 일체성 등 문화적 차원에서의 교섭 강도가 작동한다. 이렇게 봤을 때, 국제질서의 패권국인 미국의 입장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2020년 미국에서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대 중국 강경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김한권, 2021). 이는 문화적 차원의 교섭 정도도 매우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상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초당적으로 교섭 정도도 매우 낮은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구조 및 문화적 발현성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중국 시진핑 집권2기 체제도 그 발현성과 상황논리는 기존 추세를 변경하는 것보다 심화하는 것에 친화적인 것이기에 양 국가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는 ‘경쟁적’이 된다.

동시에 <표 3>에 따르면, 이에 대응되는 상호 ‘배제’가 양 국가의 행위전략이 된다. 또 이 행위전략에 따른 정책들이 구체화되었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직전 정부인 오바마 정부보다 더 직접적으로 중국을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으로 간주하고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타이완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도 불사하는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채택했다. 동시에 경제적 차원에서도 무역 재균형을 주장하면서 직전정부의 소다자주의틀인 범태평양 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을 폐기하고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진행했다(공민석, 2022, 3-4).

한편 중국은 자체적으로 국제질서 차원에서의 외부 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존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

책을 떠나갔다. 시진핑 집권 2기에는 1기에 미국에 제안했던 ‘신형대국관계’를 ‘신형국제관계’로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또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고, 기존의 일대일로와 아시아개발은행을 더욱 확대하고, 브릭스(Brics) 국가 중심 은행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무역 공세에 대해서 탈동조화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지를 담은 내수 경제 중심의 경제전략인 쌍순환 전략을 채택하기도 했다(유희복, 2023, 78-82). 그 결과는 2020년 정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체제경쟁과 갈등이 고착되었다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 냉전(New-Cold War) 담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정도로 양국 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 현상을 이 글의 분석틀의 용어를 빌리자면, 당초 이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던 때보다 더욱 심화된 조건/양립불가능한 구조 및 문화적 발현성과 대응되는 상황논리와 행위전략 그리고 상호작용의 속성이 강화된 것이다.

## 2.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중관계: 2021~2024년

상술한 분석과 같이,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를 중심으로 봤을 때 매우 심화된 조건/양립 불가능한 발현성을 가진 국제질서의 속성을 배경으로 미국은 2021년 대통령이 다른 성향의 지도자로 교체되었다. 바이든이 바로 그 핵심적인 엘리트 즉 행위자이다. 이 시기 양국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또 그 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그림 1>에서의 내생적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엘리트 유형이다. 중국의 경우, 2022년에 시진핑의 최고자 지도자 직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3연임이 확정되면서 집권 2기에서 확인된 강한 통합 정도, 약한 분화 정도, 높은 순환의 범위와 급진적 순환의 방식의 유형(S-W-W-S)의 보다 심화됐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대신 미국은 그 변화의 폭이 크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전제하에서, 반(反) 트럼프라는 기치 하에서 엘리트의 통합의 수준이 높아졌고, 여러 정치 세력이 느슨한 연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화의 수준도 높아졌다. 순환의 범위는 미국 정치 제도의 특성 상 여전히 높다. 그러나 그 방식은 점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안병진, 2021). 즉 그 직전인 트럼

프 1기 행정부의 불안정한 민주주의 체제와 대응되는 엘리트 유형(W-W-W-S)에서 고진적 엘리트 유형(S-W-W-G)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엘리트 유형 변화와 대응되는 정책 방향이다. 논리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엘리트 유형과 친화성이 있다고 보이는 대외정책과 관련한 정책 유형은 가치적으로는 좌파적이고, 태도에서는 진보적이다(F(P/L)).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구체적인 정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이념형은 일정하게 변형된다. 즉 기본적인 정향은 상기한 바와 같더라도,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반드시 상호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 직전 엘리트층의 정책이다. 상술했듯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외교 분야에 있어서 매우 전형적인 우파적이고 또 보수적인 정향을 나타냈다. 이런 매우 상반되는 정향에 대한 변화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진행되었다. 일방주의보다는 다자주의로, 또 권위주의인 방식이 아니라 일정하게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그 변화가 진행되었다. 다만 엘리트 유형에서도 내포되어 있는 점진적 속성으로 인해 정책의 급변침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분석된다(공민석, 2022, 5-6). 즉 매우 점진적인 방식의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정향이 발현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엘리트 유형과 그와 대응되는 정책 정향의 차원에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정향의 심화가 진행되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상술했듯이, 시진핑이 최고지도자 직위 3연임을 하면서 더욱 그 권력이 공고화되었기 때문이다(신중호, 2024, 28-29). 따라서 기존 정책 정향의 변경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거의 없다.

한편 엘리트 유형과 정책 정향의 특징은 두 국가의 집권 엘리트층의 기회비용에 따라 각각의 상황논리로 귀결된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조건/양립불가능이라는 트럼프 1기와 시진핑 집권 2기의 양국관계와 국제질서의 발현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이다. 우선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 첫째는 미국 정치 체제의 일반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차기의 재집권을 위한 전 정부와의 차별성에 대한 필요이다. 둘째는 미국 내에서 오바마 행정부부터 증폭되어가는 대 중국 견제 전략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필요이다. 문제는 이 두 필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판단인데, 대 중국 견제는 이미 미국의 합의된 공식으로 평가될 정도로 변동이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남궁영, 장시영, 2023, 43-44). 따라서 논리적으로 대 중국 견제의 방법론에 대한 차별성이 부각되는 상황논리가 작동한다. 그 결과, 직전 시기의 구조 및 문화적 발현성은 변화 없이 이 시기에도 주어지고, 또 선택되었다. 반면 중국 역시 미국의 변화가 없는 한, 기존 경향에 대한 변경을 고려할 수 없는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모두 구조 및 문화적으로 조건과 양립불가능한 발현성에 대응되는 제거와 선택장요의 상황 논리가 지배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그 다음 단계는 양 국가의 행위전략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양 국가의 상호작용이 전제한다. 또 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 국가의 종합국력은 이 시기에도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고(남궁영, 장시영, 2023, 46), 문화적 차원에서의 교섭 정도 역시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다. 더구나 양 국가가 논리적으로 채택하는 상황논리의 차이가 없기에 상호작용과정에서 기존 상황논리와 대응되지 않는 유형이 채택될 가능성은 더욱 낮다. 그 결과, 이 시기 양국가간 상호작용의 유형은 경쟁적이 되었고, 행위전략과 이에 대응되는 상호 배제가 주된 원칙이 되었다.

한편 이 양국가간의 행위전략은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우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 시기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더 공세적으로 외화되었다. 집권 초기 국가안보전략잠정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통해서 미중 전략경쟁을 공식화했다. 이 기초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행 부서(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 국방부 중국 태스크 포스, 중앙정보국 중국 미션 센터)를 신설했다. 또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위해 연방정부의 미국산 제품 구입을 의무화하고 국내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Buy American’, 반도체, 희토류, 의약품 등의 공급망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더불어 중국 자본에 대한 감시와 통신 장비, 군수 등 첨단 기간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국방수권법에 태평양 역지 구상 개념을 추가하여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증강의 근거로 삼았다(김진용, 2021, 42-45).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 중국 강경책을 펴나간 측면이 있다. 일방주의가 아닌 동맹과 다자주의의 복구, 그리고 힘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외교를 추구했다. 즉 중국에 대한 견제를 미국 혼자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와의 대결로 규정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일대다의 국면을 추진했다. 기본적으로 EU와 G7 등 기존 국제 질서의 주요 조직체들을 동원했다. 또 영국, 호주와 군사동맹을 위한 AUKUS라는 안보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동시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조직하여 전 세계 110개국을 참여시켰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배제한 전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을 도모했다. 이를 위해 미일동맹, 한미동맹 등 기존의 관계를 적극 활용했다. 또 G7이나 EU 등 기존 조직체뿐만 아니라, D10, IPEF 등과 같은 새로운 협력 틀을 구축했다(김양희, 2021).

한편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은 상술한 미국의 대응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조직했다. 우선 매우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최대 위협국으로 미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동시에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변화를 천명했고, 이 추세를 매우 장기적으로 판단했다(中国政府网, 2023). 구체적으로 UN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이란 등과의 관계 긴밀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반미, 반서방 연대를 공고히 했다. 심지어는 대표적인 친미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틈을 타서 관계를 정상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또 미국의 봉쇄에 대해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간 협력체로서의 Brics와 SCO의 영향력 확대와 발언권 증대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또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정상외교를 활발히 펼치면서 경제 및 외교적 영향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신중호, 2022, 41-43). 종합하면, 미국의 봉쇄를 뚫고 독자적인 세력 규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이 시기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상호 배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해 매우 적대적인 성격으로 변화했다. 그 결과 이 시기는 경제력, 군사력, 총체적 국력 등 차원에서 군사력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이미 서로 경쟁하는 양극체제로 변화했다고 평가된다(남궁영, 장시영, 2023, 61-67) 결국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은 더욱 강경했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격화되어 이 양국 관계는 더욱 경색된 것이다.

## IV. 결론

이 글은 국제관계 변화의 대안적인 분석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모델은 4차원적 엘리트 유형법과 이에 연동된 정책 정향 분류법과 형태발생적 사회변동모델에 근거한 동태적 양국관계 분석모델을 조합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동태적 양국관계 분석모델의 틀에 기반하면서, 내재적 조건에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 분석틀의 내용을 추가했다. 즉 각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기 전 단계인 내재적 조건화 단계에서 외재적 조건과 상황논리의 매개변수로써 엘리트 유형과 그에 대응하는 정책 정향의 특성이 추가된 것이다. 부연하면, 기존 국제질서의 속성인 외재적 조건하에서 ‘주어진’ 발현적 속성이 이 엘리트라는 행위자와 그들의 정책 정향이라는 매개변수에 따라서 변동가능한 것이다.

한편 이 글은 이 모델에 대한 적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관계 사례에 적용했다. 분석 결과,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의 미중관계는 결과적으로 상호 배제의 행위전략에 입각한 정책의 영향으로 현상이 변경되었다. 즉 탈-냉전기의 양국관계의 기본적인 속성인 구조 및 문화적 차원의 필요/양립불가능한 발현성과 이에 대응하는 타협/혼합수정의 상황논리 그리고 양보적 상호작용과 타협의 행위전략이 흡사 냉전기와 유사한 조건/양립불가능한 발현성과 제거/선택강요의 상황논리 그리고 경쟁적 상호작용과 상호배제의 행위전략으로 변경된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질적인 변화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시진핑 집권 2기 엘리트의 속성과 그 정책 정향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것이다. 즉 비록 미국은 W-W-W-S, 중국은 S-W-W-S형으로 서로 다른 유형이지만,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대외 정책의 측면에서 모

두 보수/우파적인 정책 정향을 나타냈기에 양 국가 간의 관계가 질적인 전환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양 국가 간의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일정한 변화를 나타냈다. 결과로만 보면, 이 시기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강경정책을 구사했다. 즉 가치, 동맹, 기술 등 세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3기 체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압박에 대해 각 측면에서 러시아, 이란 등 반미 국가들과의 반미 및 반자유주의 연대 강화, 일대일로 관련 국가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공급망과 금융 협력 체제 구축, 기술의 자립 및 자강 노선 추진 등을 통해 맞대응을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기 미중관계는 이전 시기의 추세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대 중국 정책은 그 방식의 측면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와 비교했을 때, 힘에서 가치로 또 양자에서 진영구도로 그 방식이 변화했다는 점을 특기할만하다.

이런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엘리트 유형과 그 정책 정향의 속성에 기인한다. 즉 외재적 조건인 이전 시기 양국 관계를 포함한 국제질서의 속성은 상호 배제의 행위 작용의 결과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엘리트 유형은 S-W-W-G이고 기본적인 대외 정책에서의 정향은 F(P/L)이다. 이 엘리트 유형은 본질적으로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는 친화적이지 않다. 더구나 중국에 대한 강경 태도는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한 미국 기득권층의 일정한 컨센서스를 이미 이루고 있기에, 그 추세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외 정책의 정향이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매우 상반되기 때문에, 그 방식만을 변경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집권 3기는 기존 체제의 안정으로 인해 기존 엘리트 유형과 대외 정책의 정향이 유지 및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방식은 변화했지만 기존 추세를 변경하기 보다는 심화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글은 엘리트 중심, 동태적 양국관계 분석 모델의 논리를 소개하고, 그 적실성을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우선 이 모델은 사회현상의 원인에 대한 평행선적인 구조 혹은 행위자 우선론간의 논쟁의 진전에 있어서 그 의의를 가진다. 이원론적 분석론에 의거하여 구조를 선행 요인으로 설정함으로써 논

리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상당 정도 제거했다. 또 기존 형태발생모델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취급되었던 행위자 부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모델을 추가함으로써, 구조-행위자 상호작용의 이론화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의 사례 분석에서도 밝혀졌듯이, 구조적 제약에 대해 행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결정된다는 점을 이 모델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이 점은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이 모델이 닫히지 않은 열린 결론을 지향하는 연구에서 상당한 적실성을 가진다는 것을 방증한다. 예를 들면 현재 진행형인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의 중국과의 관계, 한국 이재명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열린 결론 접근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엘리트 차원에서의 변화가 진행된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열린 결론 접근이 본격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다음과 같은 한계도 연구 과정에서 노정되었고, 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향후에 요구된다. 먼저, 엘리트와 정책 정향 유형간의 상관관계에 이론화가 요구된다. 현재까지는 귀납적 논리에 따라 사례의 수를 증가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두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회과학의 본령인 설명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 동일 엘리트 유형-상이한 정책 정향 내지 상이한 엘리트 유형-동일한 정책 정향의 원인 규명을 해결해나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동태적 양국관계 분석모델과 엘리트와 정책 정향 연계 모델간의 변수의 차원을 통일해야한다. 현재까지 상황은 전자는 기본적으로 2차원, 후자는 4차원 범주(2개의 정책 영역의 경우)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때문에 특히 동일한 구조 및 분화차원에서 동일한 발현성에 상이한 엘리트와 정책 정향 유형이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급적 동태적 양국관계 분석모델의 범주도 4차원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향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마다의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수화(indexing)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상술한 범주의 세분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면, 상호작용 단계에서 국력의 차이와 교섭 정도와 같은 범주에 대한 지수화 작업을 진행한다면, 통시 및 공시적으로 복수의 양국 관계에 대한 비교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Archer, M. (1995). *Realist social Theory: The Morphogenetic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haskart, R. A. (1997). *Realist Theory of Science*, Verso.
- Bhaskart, R. A. (1998).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Routledge.
- Resh, W., Ahn, Y., & Moyniha, D. (2024). Populism and administrative dysfunction: The impact of US government shutdowns on personnel and policy implementation, *Governance*, 37: 61-82
- 공민석. (2022). 트럼프의 이단성과 바이든의 정상성?: 대중 전략의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평가.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1호.
- 김양희. (2021). 21세기 보호주의의 변용, ‘진영화’와 ‘신뢰가치사슬(TVC)’. *정책연구시리즈* 14.
- 김진용. (2021). 바이든 시기 미·중 관계의 지속과 변화.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3호.
- 김한권. (2021).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방향성과 중국그이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04-23.
- 남궁영, 장시영. (2023). 미·중 전략경쟁, 전쟁으로 갈 것인가?. *국가안보와 전략* 제23권 4호.
- 박원곤. (2019).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국방연구* 제62권 4호.
- 신중호. (2024). 시진핑 3기 중국 대외정책의 지속과 변화: ‘중국특색 대국외교’를 중심으로. *중국사회과학논총* 제6권 2호.
- 안병진. (2021). 이행기 정치 질서? 바이든 행정부의 성격과 전망. *동향과 전망* 제111호.
- 안용진. (2025). 충성 또는 숙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료제와 단일행정부이론, 그리고 정책 집행. *한국행정학보* 제59권 1호.
- 유희복. (2023). 중국의 미·중 ‘신형대국관계’ 구축 폐기 혹은 전환 여부에 관한 연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22호.
- 이기홍. (2021). 비판적 실재론이 상기시키는 사회과학의 가능성. *담론21*. 제24

권 1호.

전재성. (2022). 한반도 국제정치와 한국의 선택. *한국과 국제정치*. 제38권 1호.

주장환. (2017). 중국 엘리트 정치 동학의 변화?: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9권 3호.

주장환. (2023).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에 대한 사례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1집 4호.

주장환 외. (2023). *유라시아 엘리트 정치의 변동: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오산: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주장환. (2024a). 경제정책 변화와 엘리트 변동: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를 사례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2호.

주장환. (2024b). 중국 개혁·개방기 엘리트 유형 변동: 통시 비교 접근경제정책 변화와 엘리트 변동: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를 사례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2호.

주장환. (2024c). 4차원적 정치 엘리트-체제 유형법: 이념형간의 대응과 사례. *대한정치학회보*, 제32집 4호.

주장환. (2025a). 탈-탈냉전기, 양안관계변화에 대한 연구: ‘열린 결론’ 접근. *동북아연구*, 제40권 1호.

주장환. (2025b). *트럼프 2.0 시기, 마중관계“ ‘동태적’ 정세예측모형의 적용*. 오산: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中国政府网. (2023년03월06일). 习近平看望参加政协会议的民建工商联界委员时强调: 正确引导民营经济健康发展高质量发展.

[https://www.gov.cn/xinwen/2023-03/06/content\\_5745092.htm](https://www.gov.cn/xinwen/2023-03/06/content_5745092.htm)(검색일: 2025.03.06.).